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건계열 학생의 융합교육과정의 접근

박은희¹, 박해령², 김혜숙^{3*}

¹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²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³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Approaches to Convergence Curriculu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with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Eun-Hee Park¹, Hae-Ryoung Park², Hye-Suk Kim^{3*}

¹Nursing Department, Kwangju Women's University,

²Division of Liberal Arts & Teacher Train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³Nursing Department, Mokpo Chatoric University

요약 최근 교육형태가 융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융합교육을 선호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 중이다. 본 연구는 교과 외 과정 중 보건계열 전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임상술기를 선별하여 프로그램 개발·적용 후, 향후 전체 보건계열 학생에게 적용 가능한지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본 개요 프로그램은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 지식, 전문직 이미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사전 사후연구이며, 이러한 융합 교육과정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의료진 및 환자 간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사료된다.

• **Key Words** : 보건계열 학생, 융합교육과정, 융합인재 양성, 임상수행능력, 전문직 이미지

Abstract Recently, the tendency in the education system is toward the convergent curriculum to developing people of interdisciplinary abil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that assists health department students' clinical practice and to examine its learning effects. Study samples were composed 94 graduating student nurses who were from nursing dept of on M city. This study employed a one-group pre-post test design. knowledge, clinic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imag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ost test group. That was enhanced by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than that of the pretest group ($p < .001$).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will help students in clinical adaptability of the department of healthcare-Affiliated.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to identify the effect of a clinic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 **Key Words** :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Convergence Curriculum,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Developing People of Interdisciplinary Abilities, Professional Images

*교신저자 : 김혜숙(juliana@kwu.ac.kr)

1. 서론

국내 의학자들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 사망자의 다섯 명 중에 한명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발표했다[1]. 이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의 증가, 사스나 메르스 등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임상환경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응급상황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상현장에 국한하지 않으며 지역 사회 역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지역사회 전반에 배치가 될 정도로 심뇌혈관질환자가 증가했고 일반인의 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다[2]. 더불어 고지혈증으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열 명의 30대 중 1명은 당뇨, 1.4명은 이상지질혈증에 이환될 정도로 심뇌혈관질환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 OECD국가 중 당뇨사망률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1]. 이는 보건계열 전반의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환자 생명 연장을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갖추어야함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자들은 미국심장협회가 제시하는 교육방침에 따라 2년에 1회씩 기본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을 것을 권고한다[3,4].

심폐소생술은 심장소생에 주목적이 있는 관계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동안 필요한 흡입, 산소공급, Vital Sign의 다양한 술기교육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되는 기초술기가 교육된다면 보건계열의 학생들의 성공적인 심폐소생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은 직업전문인이 보건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하게 지녀야 할 지식, 판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를 돌볼 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5]. 즉 정확한 술기능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의료진 간 협동 능력, 대상자 교육 능력, 자아성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면 최종적으로 대상자 돌봄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6,7]. 미래에 전문직에 종사해야 하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식, 경험, 가치관 등이 확고히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인으로서 긍정적 자아개념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8].

미래의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세의 확립은 직업윤리 향상과 개인적인 자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자들은 전문직이미지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존감, 자신감,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 등이 향상됨을 보고한다[9].

보건계열의 학생은 긍정적이고 소명의식을 가진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 일련의 학교교육과정과 임상실습과정을 이수한다[10]. 그러나 불행히도 학교과정 동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업무능력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전문직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9,11].

교육자들은 학생이 올바른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 확고한 전문직업인으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8,9,10].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끊임 없이 제시하며 필요한 교육적 방법을 융합하는 등의 다각도의 교육적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을 위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기초 술기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Pilot Study로 진행해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보건계열 학생들의 기초술기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 교육과정 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을 위한 술기개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를 적용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효과검증은 M시에 위치한 4년제 M대학의 졸업을 앞둔 4학년 9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의 허락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4년제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보건계열 학생으로 122학점의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불참이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과 [14], 보건의료계열 학생용 실습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공통되는 학습 영역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후 공통된 4개의 학습영역의 내용을 2인의 간호학 교수가 임상수행능력 평가순서 및 평가방법을 비교한 후 최종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은 보건계열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개요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술기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활력징후 9문항,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6문항, 산소화 4문항, 흡인 8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매우 잘한다’에 5점, ‘매우 못한다’에 1점을 부여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2 임상수행 지식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 지식은 국내 대학에서 사용되는 실습 지침서를 바탕으로 2인의 전공교수와 1인의 전문의, 1인의 3년 이상 된 임상경력자가 내용을 검토해 문항을 마련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임상수행 지식은 활력징후 7문항,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4문항, 산소화 2문항, 흡인 2문항으로 총 1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 이었다.

2.3.3 전문직 이미지

본 연구에서 전문직 이미지는 학생이 전문직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합을 의미하는 것으로[15]이다. 본 연구는 조영희[16]가 개발한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본 연구자가 일반적인 전문직 이미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하부영역으로 전문직 영역 12문항, 의사소통 영역 5문항, 업무적 영역 6문항, 조직적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이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사전자료 수집은 학과장의 허락을 받은 뒤 학생에게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이므로 연구이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보장이 됨을 설명한 후 동의할 경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사전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이 모두 끝나는 2012년 9월 12일에서 9월 17일에 실시하였다. 반환성이 두 개의 반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2회에 걸쳐 본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임상실습 조교가 각각 40분의 시간을 준 후 자기 기입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사후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 23에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표기하지 않거나 사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임상실습 조교 입회하에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2.5 자료수집 방법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각 5년 이상의 임상실무 경험과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임상 및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실습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영역을 활력징후,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산소화, 흡인4개 학습영역으로 압축하였다. 이후 선정된 학습영역을 심화정도와 세분화 정도, 훈련시간과 훈련양 등을 고려하여 모듈을 재구성하였다.

<Table 1> Consist of Program

Module	Time (Min)	Topic
1	20	Orientation of program
	120	Theory of CPR & AED & Video Training
	120	Practice of CPR & AED
2	90	Theory of Vital sign Training of Vital sign
3	90	Theory of oral suction Training of oral suction
4	90	Theory of simple mask & nasal cannula
		Training of simple mask & nasal cannula
5	180	CPR
		Vital sign
		Oral suction
		Apply of nasal prong & simple mask

구성된 모듈은 활력징후, 흡인간호, 산소화 간호,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으로 각 모듈은 프로그램 운영에 맞게 순차적으로 배열한 후 각 학습영역에 따른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학습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산소화 간호영역은 단순마스크와 비강캐놀라에 한 정해 포함하였고 흡인간호영역은 기관 내 흡인과 구강 흡인만을 교육에 포함하였다. 모듈에 따라 교육안을 작성한 후 간호학교수 2인이 교육안의 내용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적용은 학습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교육과 함께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초안을 작성하였다.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에 구성된 주제와 세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18.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건강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각 변수에 대한 사전 사후의 차이검정은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의 사전 사후 평가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보건의료 전공 중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과도한 학업 68(72.3%)명, 기타 10(10.6%)명, 타지 생활 8(8.5%)명, 불확실한 미래 5(5.3%)명, 교우관계 3(3.2%)명 순으로 응답해 학생은 학생생활에서 과도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술기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주제별 반복 실습교육 62(66.0%)명, 현재 충분하다 13(13.8%)명, 이론교육 9(9.6%)명, 실습 시간 연장 8(8.5%), 기타 2(2.1%)명 순으로 응답해 실습 주제에 대해 반복 실습교육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실습시 가장 도움이 되는 조력자에 대한 문는 문항에 동료실습생 39(41.5%)명, 조교 26(27.2%)명, 지도교수 19(20.2%)명 순으로 응답해 학생은 동료학생을 실습을 진행하

는 동안 가장 많이 의지할 수 있는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94) n(%)	
Gender	Male	10	(10.6)
	Female	84	(89.4)
age(years)	20-25	86	(91.5)
	26-30	3	(3.2)
	30 mole then	4	(4.3)
school	Immediately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83	(88.3)
	Incorporation of nursing college	1	(1.1)
	After incorporating other majors	8	(8.5)
	After having job	2	(2.1)
Religion	Christianity	19	(20.2)
	Catholicism	39	(41.5)
	Buddhism	9	(9.6)
	etc	27	(28.7)
Difficulties	Not a home	8	(8.5)
	Excessive study	68	(72.3)
	Uncertain Future	5	(5.3)
	Affiliation etc	3	(3.2)
Reason of nursing	I wanted	45	(47.9)
	The advice of the surrounding	41	(43.6)
	etc	8	(8.5)
Points necessary for education	Education of theory	9	(9.6)
	Extended practice time	8	(8.5)
	Repeat Education Suffice	62	(66.0)
	etc	13	(13.8)
Influential partners in education	other students	39	(41.5)
	family	6	(6.4)
	Professor	19	(20.2)
	assist	26	(27.2)
	etc	2	(2.1)
	No one	2	(2.1)

3.2 변수검증

변수검증은 <Table 3>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은($t=-10.092, p < .001$)로 사전 사후 검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하부영역에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산소화, 흡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Difference of variables

Variables	Pretest (n=94)	Posttest (n=94)	t	p
	M±SD	M±SD		
Knowledge of clinical Competency	19.29±2.80	28.14±2.29	-27.315	<.001
Clinical Competency	180.72±21.48	202.47±20.07	-10.092	<.001
Vital sign	37.95±4.60	39.58±4.21	-2.975	.004
Basal life Support & application AED	22.53±3.52	25.80±3.03	-8.574	<.001
O2 apply	19.77±3.22	21.57±2.83	-5.309	<.001
Suction	30.17±4.95	33.90±4.27	-7.662	<.001
Nurse image	72.40±6.29	79.41±8.91	-8.384	<.001

본 프로그램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다음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에서 평균 72.40(±6.29)점, 사후검사에서 평균 79.41(±8.91)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관련 지식은 (t=-27.315, p <.001)로 사전 사후 검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 이미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다음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에서 평균 180.72(±21.48)점, 사후검사에서 평균 202.47(±20.07)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이미지는(t=-8.384, p <.001)로 사전 사후 검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3 학습자 요구도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하여 학습을 마친 간호학생 94명에게 임상수행능력 각 모듈에 포함된 주제별로 교육 요구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생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20.17(±3.80)점, 사후검사에서 평균 16.05(±4.21)점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에서 교육요구도는 (t=6.688, p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Educational need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I need education of vital signs.	2.86±0.82	2.43±0.77	4.086	<.001
I need education of BLS & AED	3.39±0.86	2.68±0.85	6.065	<.001
I need education of O2 supply	3.29±0.80	2.66±0.81	5.941	<.001
I need education of suction	3.52±0.76	2.78±0.95	6.688	<.001
Total	20.17±3.80	16.05±4.21	7.906	<.001

4. 결론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계열 학생들이 임상현장에 나가기 전 자신의 술기 향상을 도모해 대상자에 대한 질적 돌봄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듈은 학생이 술기 시행 시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듈을 구성하였다[17]. 프로그램 모듈구성은 보건전문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술기의 교육이며, 학생들은 매우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심폐소생술은 보건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디서든지 응급상황이 초래되고 그에 대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임상현장의 경력간호사조차 심폐소생술 수행이 비효과적이고 수행정도에 차이가 매우 많다는 보고가 있어 포함하여 실시하였다[18][19]. 심폐소생술의 평가는 타 대학의 교수자에게 위임하여 평가를 받아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임상수행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간호학생에게 교육요구도에 대해 5점 평가를 시행한 결과 사전 조사보다 5.12점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이 타 술기에 비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심폐소생술의 훈련은 몸으로 익히고 실행해 봄으로써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융합교육과정이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사전 76점, 사후 86점으로 매우 유익하게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 중 실습지원을 위한 웹콘텐츠의 학습효과 연구에서 사전 사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점수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19]. 이는 반복적으로 술기연습의 진행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 자기주도성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학생에게 임상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실습교육의 확대와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실습실의 개방이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원과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임상수행 지식은 사전은 64.28점, 사후는 93.78점으로 대폭 상향된 점수이다. 이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식이 높아졌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19]. 지식의 수준의 향상이 선행연구보다 높은 이유는 대상자가 4학년 마지막 학기의 시작과 끝에 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대상자 성숙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실제 직접 수행을 해보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지식을 함양하고 학생이 임상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훈련과 평가가 프로그램에 포함됨으로서 지식 습득에 대한 열망 역시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더불어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는 단순히 암기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던 지식부분이 실제 술기의 수행을 통해 실제 지식으로 전환되어 지식적 체계화가 이루어진 까닭이다.

대상자의 전문직이미지는 사전 72.40점에서 사후 79.41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학생이 갖는 실무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이 자신의 미래모습에 투영되어 향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문직이미지가 사후조사에 향상을 보인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유능하다”, “내게 임무가 맡겨진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능률적으로 일할 것이다.” “나는 리더로 유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임상문제 발생 시에 나는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향상을 보인 상위 문항을 살펴보면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간호실무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이 기본술기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학생에게 전문직에 대한 이해나 대상자에 대한 공감능력부족이 의사소통 교육 미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이 소명의식, 실

천 의식, 생명 존중에 대한 숭고한 정신 등을 가지고 모범을 보인다면 학생에게 긍정적인 전문인으로서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8,19]. 더불어 교육자들이 학생 대상의 의사소통 및 직업적 소명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지식을 갖추는 동안 실무 능력의 향상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실무에 대한 자신감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학생이 갖게 되는 전문직에 대한 포부에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교육자, 임상실무가, 학교, 교육 병원 등이 협력하여 임상에서 가장 요구되는 술기를 추출하여 표준화한 후 교육에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적용할 때 대상자 혹은 의료진 간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능력, 임상술기 능력의 반복 교육 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를 부여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상자의 교육요구도는 사후조사가 사전조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7.906, p < .001$)를 보여 임상수행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교육요구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술기 위주의 융합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하며 더불어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ACKNOWLEDGMENTS

Eun-Hee Park and Hae-Ryoung Park contributed equally to this study.

REFERENCES

- [1] G. H. Song, “direction of Nursing Clinical Practice training using simulation”,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Seoul, 2011, 5, 20.
- [2] M. N. Bremner, K. Aduddell, D. N. Bennett, & J. D.

- VanGeest, "The use of human patient simulators : Best practice with novice nursing students", J. of Nurse Educator, Vol.31, pp. 170-174. 2006.
- [3] M. A. Shinnick, M. A. woo, & J. C. Menten, "Human patient simlator: State of science in prelicensure of nursing education", J of Nursing education, Vol.50, No2, pp.65-72, 2011.
- [4] K. S. Hyun, H S. Kang, W. O. Kim, S. H. Park, J. A. Lee, S. H. Sok, "Development of a Multimedia Learning DM Diet Education Program using Standardized Patients and Analysis of Its Effects on Clinical Competency and Learning Satisfaction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39 No.2, pp.249-258, 2009.
- [5] C. Barrett., &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ship and its effect on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 of Advanced Nursing, Vol.27, No2, pp.364-371, 1999.
- [6] M. S. Yoo, I. Y. Yoo, Y. J. Son, "Effect of OSCE Method on Clinical Skills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9, No1, pp.73-80. 2003.
- [7] E. W. Park, "Comparison of Self-assessment and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of Medical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Korean J. of Medical education, Vol20, No1, pp.52-60, 2008.
- [8] M. S. 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2, pp.159-167, 2011.
- [9] Y. I. Kim, J. S. Park, "Effects of an Intravenous Injection Case-based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on Problem Solving Skill, Nursing Process Application, Nursing Skill and Learning Satisfaction",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25-35, 2011.
- [10] D. J. Oh, C. J. Choe, B. E. Kwon, Y. 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1, pp.64-72. 2005.
- [11]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 J Korean Acad Nurs Admin Vol.13 No.3, pp.285-292, 2007.
- [12] J. I. Kim, K. H. Kim, H. J. Paik, M. R. Eom, O. J. Chang, W. S. Lee, H. S. Jeon, H. S. Min, S. Y. Oh, K.Y. Sohng, " A Study to Identify Contents of the Journal through Review of Classification of Sectional Editorship",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18, No2, pp.267-276, 2011.
- [13] J. I. Kim, J. H. Kim, H. J. Paik, K. Y. Sohng, M. R. Eom, S. Y. Oh, W. S. Lee, O. J. Chang, H. S. Jeon, D. S. Lee,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Practicum of Fundamentals of Nursing and Test for Competency of Nursing Skills",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17, No3, pp.362-370, 2011.
- [14]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Nursing, "Nursing Accreditation Criteria", <http://www.kabon.or.kr/kabon02/120120319133351.pdf>.
- [15] P. A. Kalisch, B. J. Kalisch,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Addison-Wesley Pub. pp.194, 1987.
- [16] Y. H. Cho, "*Development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 Focused on Nursing Students*", Chosu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17] Y. H> Shin, H. J. Lee, Y. J. Lim,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6, No1, pp37-47, 2010.
- [18] B. S. Abella, J. P. Alvarado, H. Myklebust, D. P. Ederson, "Quality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During In-Hospital Cardiac Arrest", J.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93, No.3, pp.305-310. 2005.
- [19] Y. O. Kim, Y. S. Bae, S. M. Kim, J. J. Yang, "The Effects of Web-Contents Learning for Adult-Care Practice",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1, pp.5-13, 2010.

저자소개

박 은 희(Eun-Hee Park)

[정회원]



- 2007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 박사
- 1995년 5월 ~ 2001년 1월 : 삼성서울병원 재직

- 2011년 3월 ~ 2013.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임상교육, 성인건강문제, 지역사회건강문제, 보건기초육 및 연구

박 해 령(Hae-Ryoung Park)

[정회원]



- 2010년 2월 : 전남대학교 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조교수

<관심분야> : 천연물생화학, 분자생물학, 예방치의학, 보건통계학

김 혜 숙(Hye-Suk Kim)

[정회원]



- 1988년 5월 ~ 1998년 5월 : 조선대학교병원 재직
- 2001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04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1998년 3월 ~ : 목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임상교육, 학생건강문제